

동티모르 원조공여국 회의 결과

개발원조위원회 정기회의(Timor-Leste and Development Partner's Meeting)가 동티모르 정부와 World Bank 공동주최로 4. 25(월)~26(화)간 개최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I. 핵심요지

- 표제회의에서 지난 1년간 동안의 국가발전계획(NDP) 이행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2005/6 회계연도 예산안과 향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또한 donor(국가/국제기구)들의 지원공여 현황 발표와 향후 지원방향과 계획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음.
- 공여국들은 동티모르가 지난 1년간 제반분야에서 현저히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평가하고 재정운용 관련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티모르해 석유·가스 개발수익의 현저한 증가(FY04 41백

만 불→FY05 243백만불), 재정긴축노력 및 과세 강화노력에 힘입어 건실한 재정이 유지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미래 후손을 위한 석유기금 적립을 높이 평가함.

- 향후 주재국은 정치적 불안정 요소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건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5년 4월 내·외국인 투자법 제정으로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동티모르대사관은 그간 우리 기업의 對주재국 투자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나 중·장기적 발전가능성을 고려 '긍정적 고려' 입장으로 상향 조정함.

II. 상세사항

1) 회의 참가국

- 국가: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프랑스,

- 핀란드, 독일,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한국,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일본, 포르투갈, 스웨덴, 태국, 영국, 미국 (22개국)
- 국제기구: UNMISSET, UNDP, UNICEF, WHO, UNIFEM, UNFPA, UNESCO, UNHABITAT, UNIDO, UNOPS, FAO, ILO, IOM, ADB, IMF(15개 국제기구)
-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대표

2) 기조발언

- Alkatiri 총리 / Francisco Guterres 국회의장 (동일 취지)
- 독립 이후 3년간 제반분야에서 동티모르 정부가 이룩한 성과를 열거하고 유엔 천년개발계획(MDGs)에 충실한 NDP를 착실하게 진전시키고 있음을 강조
 - Sector Investment Programs(17개)하에 Sector Working Groups(10개)을 통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역량 배양(capacity building)을 추진하고 있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법 제정과 투자수출진흥청 신설 노력, 민주주의 증진을 향한 지방기초자치단체 선거 실시를 부각
 - 2006 회계연도에는 인프라구축, 공무원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어 사회경제 발전기조를 다지고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부 구조조정을 하여 민주적이고 안정된 평화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진력하고 있음을 강조
 - 알카티리 총리는(이달 초 “학교 교과과정에서

카톨릭 수업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항의하여 4월 18일부터 현재까지 2주간 딜리에서 계속되고 있는 카톨릭계의 항의시위를 염두에 두고) 빈곤, 문맹, 의사소통 인프라구축 미흡, 진실의 오도가 민주주의와 법치(rule of law) 구현을 왜곡시키는 장애물이라고 언급

- Kassum W/B 부총재(Zhu Xian 동티모르 담당 과장 대독)

- 동티모르는 독립 이후 지난 3년 동안 천년개발 목표(MDG)를 모범적으로 반영한 NDP를 잘 이행하여 왔으며 특히 석유개발수익을 투명하고 건설하게 운용하고 석유자원이 현재의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공유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구축하였음을 높이 평가
- 동티모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여국들이 무상지원 공여(CSP)를 지속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사법분야 등 핵심정부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동티모르 정부와 공여국들의 공동의 노력이 긴요함을 강조

※ CSP(Consolidation Support Program)는 이전의 TSP(Transitional Support Program)를 전환한 것으로 공여국 무상지원공여프로그램

3) 의제별 토의결과

의제 1

재정(Fisc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 동티모르 정부 및 W/B 발표

- 회의를 주재한 Alkatiri 총리와 Zhu Xian W/B 대표가 기초발언 발표를 통하여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Boavida 기획재무장관과 Bassarewan 차관이 구체 내용에 대해 발표

가. 2005 회계연도 예산집행

2004 회계연도 기간 중 세입은 티모르해 개발소득이 예상보다 많이 유입되고 세정개선으로 국세수입(특히 관세)이 증대되어 당초 예상치인 169백만불보다 107백만불 증가한 276백만불 예상. 반면, 재정지출은 예상보다 저조

※ 2004/5회계연도 기간은 2004. 7-2005. 6이며 2005 회계연도로도 표시

나. 2006 회계연도 예산안

2005년 7월부터 개시되는 FY06 예산은 118백만불로 빈곤층에 중점을 두어 편성, 보건·교육부문에 전체예산의 35%, 교육예산 중 45%를 초등학교에, 보건예산 중 40%를 병원지출에 배정, 경찰과 국방에는 전체 예산의 19%로 편성

〈중기 예산 전망〉

(단위 : 백만US\$)

	FY05	FY06	FY07	FY08	FY09	FY06-09
세입	306.5	205.6	234.9	232.5	262.7	935.7
국세	33.2	36.4	38.6	40.8	43.7	159.5
티모르해 개발수익	242.6	158.7	185.7	181.2	218.5	744.1
공여국무상원조(CSP)	30.7	10.5	10.5	10.5	0.5	
세출	78.7	119.6	106.1	112.0	109.6	436.7
재정흑자	227.8	86.0	128.8	120.5	153.1	488.4
Financing Gap	0	0	0	0	0	0

※ 재정흑자는 대부분 석유기금으로 적립

다. 경제지표

- 바유운단 유전은 2004년 4월 이래 본격적으로 가동중이며 향후 새로운 유전개발 가능성 상당
- 석유생산으로 인해 GNI는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비석유부문 GDP도 미약하나마 증가세를 보여 2002~2003년 2년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04년도에는 2% 성장 시현
- 인구증가율(연 3% 수준)이 높아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특히 비숙련노동력은 아직도 현저히 높은 상태로 빈곤감축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노동생산성 제고가 시급한 실정
- 물가상승률은 연 2.5% 수준으로 안정적
- 2004년도 비석유부문 수출은 8백만불이며 이중 커피수출이 약 700만불로 전체 수출의 대부분 차지(커피수출은 국제가격 상승과 시장개척에 힘입어 크게 증가)
- 금융부문 활동은 2004년 중 빠르게 확대되어 예금잔액은 2003년도 72백만불에서 2004년도에 84백만불로 증가하였으며 대출잔액도 전년 대비 수 배 증가
- 2004년 중 외국인투자는 많지 않았음.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제는 많은 진전을 이룩하였으나 회사등록절차는 복잡하고 불분명함. 투자수출진흥청이 2005년 중반에 설립되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노동부문에서는 2005년 중 한국으로 동티모르 노동인력 송출이 예정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로의 송출도 추진되고 있음.
- 전 분야를 망라하여 17개 부문의 부문별 투자제

획(SIPs : Sector Investment Programs)이 수립 · 이행중

□공여국측 발언 요지

- 공여국들은 동티모르 재정건전성 확보와 석유 기금 확충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직면한 실업문제 해소, 저소득층 계층 지원확대 차원에서 도로, 통신 등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재정지출 필요성을 제기. 이외 별다른 토의 없이 조기 종결됨.

의제 2

Capacity Building

□ 동티모르 정부 및 W/B, UNMISSET 발표

- Capacity building 총괄기관인 CDCU (Capacity Development Coordination Unit)의 Augusto Barreto 소장은 중기 능력배양을 위해 ①자문관과 현장 훈련교육 ②해외훈련 ③부처간 교차훈련 ④부처 내 별도 교육훈련 실시 계획에 대해 상세 언급하고 공여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음.
- UN 대표인 하세가와는 동티모르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capacity building임을 강조하고 동티모르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문관 400명 중 사법, 재정, 법률분야를 중심으로 58개 직위를 핵심직위로 선정, 이를 안보리에 보고 예정임을 언급하고 UN 산하기관, 국제기구, 공여국가들이 자문관 충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
- (공여국측이 제기한 동티모르 정부의 capacity

building 노력 미흡 및 전략 부족 지적에 대해 동티모르 정부대표로 나선 행정자치 장관은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공무원들을 교육훈련시켜 놓으면 이들이 그만 두고 보다 더 많은 보수를 찾아 international organization으로 옮겨가 버리거나 해외로 가버리기 때문에 capacity building상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

□공여국 반응

- 대부분 공여국들은 사법, 재정분야에서 capacity building과 부정부패 없는 정부 건설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
- 영국과 아일랜드 대표는 그간 많은 자문관들이 와서 동티모르 공무원들을 교육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문관들의 적극적인 관심 결여와 공무원들의 의지 결핍으로 인해 실효성 있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capacity building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제도화 구축 필요성을 강조
- 또한 capacity building 총괄기관인 CDCU가 인적자원육성의 중요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CDCU 기능강화를 주문
- IOM, 아일랜드 대표는 수도인 딜리에서는 각종 세미나나 회의를 통하여 capacity building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지방에서는 capacity building에 무관심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capacity building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institution building과의

병행이 중요함을 강조

4) 주요국 발언요지

가. 미국

- 행정·사법제도 강화, 지방정부의 능력배양 및 지방으로의 행정서비스 확대강화,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의 육성, 농업생산성 향상과 시장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 및 소득창출, 일반국민들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부패척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
- 미국은 향후에도 경제활성화, 민주주의 공고화, 보건 서비스 확산에 중점을 두어 지원할 것임을 천명하고 동티모르 정부도 자체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

나. 일본

- Fukusihma 외무성 의회차관(참의원)은 Post - UNMISSET에도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존속이 필요함을 강조. 특히 자신이 헬기로 국경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유엔군 (UN organized troops)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음을 강조
- 고이즈미 총리의 자카르타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발언을 인용하여 경제발전, 평화구축,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일본 정부의 對개도국 지원 정책에 대해 언급
- 일본은 1999년 서약한 130백만불, 2002년 서약한 60백만불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강조하고

2005년에 추가로 20백만불 지원 예정임을 밝히고 인적자원개발과 제도구축, 인프라, 농업개발, 평화공고화, 선정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고 있음을 언급

- 2004년 1월 서명된 기술협력협정이 발효되면 전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제공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동티모르측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

다. 중국

- 중국은 외교부청사, 대통령궁, 재향군인 주택 100채 건축 등 3개 건축사업을 지원키로 약속한 바, 외교부청사 건축계약을 이달중 체결하고 곧 건축공사를 개시할 예정이며 대통령궁은 설계단계에 있으며, 재향군인 주택 건축은 동티모르 정부가 주택부지를 결정하면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임.
- 중국 의사 파견, 연수생 초청·훈련지원, 주중국 동티모르 대사관 설치 및 운영 일체 지원 언급
- 중국과 포르투갈사용국간 경제협력포럼 하에서 양국간 경제협력과 투자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중국의 Yuan Longping High-Tech 농업회사는 hybrid 벼 재배를 지원하고 있고 PetroChina와 BGP사는 동티모르 내륙과 해역에서 석유자원개발 지질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라. 호주

- 동티모르가 향후 공여국 지원 없이도 자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요구됨. 허약한 정부행정 기능으로는 성장과 빈곤경감을 이룰 수 없기 때

문에 투자촉진을 위한 법제와 제도 구축 중요성을 역설하고 동티모르가 부정부패 없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

-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서비스 제공 노력 강화 필요성, 식량안보 차원에서 개량종자 도입 · 배포를 위한 농림수산부와 Australian Center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ACIAR) 간 협력사업에 대해 언급하고 호주는 연간 4,000만 호주달러 수준의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힘.

마. 유럽연합

- 진행 중인 지방기초단체 선거(13개 District 중 5개 District에서 실시), 인도네시아 및 호주와 국경선 확정 진전을 평가
- 중범죄단과 진실화해위원회가 추가적 조치 없이 종결될 경우 1999년시 잔학행위를 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오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립과 갈등관계에 있는 경찰과 군간의 대화 촉구

바. IMF

- 당면한 실업문제해결과 경제활성화, 빈곤축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 활성화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완비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
- 경제성장과 안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경제시스템 구축 필요 주장

사. 인도네시아

- 금년 4월 8~9일간 동티모르를 공식 방문한 유도 요노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의 안정과 번영이 지역안보에도 직결된다는 공동 인식 아래 동티모르가 보다 강한 나라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것임을 밝힘.

5) 우리나라 발언 요지

- 동티모르 정부의 국가발전계획수립과 이행에 순조로운 진전이 있음을 평가하고 특히 법적 · 제도적 정비, 재정운영, 국정능력배양, 투명성 제고 등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
-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한 인적자원개발과 농촌지역 발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의 새마을운동의 기본취지와 정신을 소개하였음.
- 특히, 스포츠분야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동티모르 유소년축구팀(김신환 감독 지도)이 히로시마 개최 리베리노컵 국제대회에서 2연패하였음을 소개하고 신생국 동티모르도 국제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임을 강조함.
- 정부 차원에서 연수생초청, 기자재 공여, 전문가 파견 지속 추진 및 금년 중 동티모르 노동인력도입과 해외봉사단 파견 계획을 밝히고 스포츠, 종교, 문화, 의료보건, 교육, IT, 농업개발 등 분야에서 한국 민간단체 지원 실적을 소개하고 계속적인 지원 유도 방침에 대해 언급
- 지방병원건립(평화의료재단), 여성 · 아동센터

(경기도, 구미시), 신학교건립성금지원(대구카톨릭교구), 슈퍼콘개발프로젝트(김순권 박사), 의료봉사단(대구달서, 경기도 등), IT 봉사단 등

〈주요국 원조공여 현황(1999-2005.4)〉

국가/국제기구	공여액 (단위: 백만 미불)
포르투갈	199
일본	191
호주	186
EC	177
미국	100
영국	55
UNDP	42
노르웨이	41
UNICEF	40
UN	33
독일	32
WFP	26
World Bank	25
UNHCR	24
중국	24
스웨덴	20
아일랜드	20
캐나다	18
핀란드	17
ADB	10
UNFPA	9
WHO	8
뉴질랜드	7
네덜란드	6
한국	6
FAO	3
브라질	3

※ 우리나라는 민간단체 지원 포함

III. 관찰 및 평가

1. 평가

- 공여국들은 동티모르 독립 이후 지난 3년간의 짧은 기간 내에 제반 분야에서 현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음을 평가
-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티모르해 석유·가스 개발수익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여 공여국들의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당분간 재정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정부의 건설한 예산집행으로 인해 예산은 있으나 충분히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동티모르는 신생국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외채를 전혀 쓰지 않은 가운데(동티모르는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최혜조건으로 제공하는 제로 금리의 차관도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석유자원을 미래 후손들과 공유하기 위해 석유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등 건실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바유운단 유전 이외에 추가적으로 Greater Sunrise 유전에서 추가적으로 개발수익이 예상(2010년부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동티모르는 경제적으로는 다소 낙관적일 것으로 평가
- 금번 회의에서 동티모르 정부는 재정여건의 호전에 힘입어 공여국들에게 지원을 절실히 요청하는 면은 별로 없었음. 공여국들도 동티모르 정부의 노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반적으로 공여국들이 제기하는 부정부패 등 good governance를 위한 문제 제기가 현저히 줄어들었음.

□ 특이사항

-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금번 회의에 차관급 인사(참의원인 Fukusihma 일본대표는 정무직으로 외무성내 서열 3위에 해당)가 참여하여 2005년 5월 UNMISET 임무 종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유엔 존속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별도발언을 통하여 일본정부의 대개발지원 외교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등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 등을 겨냥한 면이 역력하였음.

2. 중기 경제전망(동티모르대사관 관찰)

- 독립 3년을 맞은 주재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 역할 축소에 따라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외국인의 역할이 현저히 줄어든 반면 동티모르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향후 마무리단계에 있는 투자관련 법령이 정비되면 (투자법은 2005년 4월 국회통과)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어 석유산업 이외 분야에서도 실물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함.
- 따라서 우리 기업의 대주재국 투자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건의

- 한·동티모르 양국간 확고한 우호협력관계 지속을 위해서는 대동티모르 개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

- 현재 예정인 해외봉사단 파견을 금년 중 개시,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동티모르의 capacity building을 지원 필요
- 향후 ‘독립기념관 건립사업’ 이후 신규 프로젝트 사업 추진 필요
 -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된 독립기념관은 당지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 ※ 마하티리 말레이사 전 총리 방문,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문, 독일 외무장관 방문, 동티모르-인도네시아 공동위원회 개최, 호주-동티모르 석유협상 개최 회의장으로 사용
- ※ 영국 대사는 5천만불을 공여하고도 독립기념관 같은 건물을 남기지 못하였다 하면서 부러워하고 일본 대사관측도 매년 Ceremony할 때 독립기념관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높이 평가

[자료:주동티모르 대사관]